

# 북한 도발사



강릉침투 북한 상어급 잠수함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남북한 간에는 여전히 군사적 대결과 대치의 불안정한 분단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우리의 안보상의 위협은 무엇보다도 거의 분단 반세기 동안 아직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공산화 통일전략 그리고 이러한 대남전략을 지난 반세기 동안 선도하고 뒷받침해 온 대남도발 및 대남공작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후전 이후 1997년 말까지 무려 42만 4,122건에 이르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과 대남도발의 실상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조선혁명과 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따라 대남공작과 대남도발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도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경계태세 파악 외에도 고위 군사정책 결정 과정의 민첩성과 합리성 그리고 대응방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도발은 테러리즘과 대남 국가심리전 차원의 전술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폭력투쟁을 중지하거나 포기하면 북한 내에서 대남 적대 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혁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식량난에 허덕이면서도 연간 56억불 이상의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세계 제일의 병영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군사적 위협수단을 통해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상의 유리한 상황 조성과 반대 급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이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남도발을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의 대남전술 변화와 연계된 대남도발은 시기별로 빈도, 방법, 규모면 등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 공산정권 수립기(1945. 8. 15~1950. 6. 24)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정권 창건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서 소련군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공산정권 창건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과 도발이 자행되었다.

주요 사건은 조선정관사 위조지폐사건(1945. 9. 15), 연백평야 통수거부사건(1946. 5. 8), 서울방송국 적화공작사건(1947. 8. 4), 조선은행권 대남 밀송사건(1947. 12. 1), 2·7 폭동사건(1948. 2. 7), 4·3 제주도사건(1948. 4. 3) 여·순 반란사건(1948. 10. 19), 남로당 국회프락치사건(1949. 4. 18) 등으로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기반 구축과 남한에서 지하당 공작을 병행해서 추진하였다.

특히, 1948년 2월 인민군이 창설되고, 동년 9월 김일성정권이 공식적으로 창건된 이후부터는 지하조직을 통한 대남공작전술로 전환하여 합법, 비합법의 양면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지하조직과 남파간첩에 의한 유격전을 강화하고 한국 국회 및 각 기관에 프락치를 침투시켜 정보수집과 모략, 와해공작을 수행하였다.

## 남침전쟁 및 전후 복구기(1950. 6. 25~1960. 4. 19)

북한정권 최대의 대남도발은 바로 6·25남침에 의해 발발된 한국전쟁이다. 북한은 육군 10개 사단, 공군 1개 비행사단, 해군·해병대 등 약 20만 병력과 T-34 전차 및 장갑차, 자주포, 곡사포, YAK전투기, 경비함 등으로 전면 기습도발을 감행했을 뿐 아니라, 이미 남한 내에 침투한 유격대의 제2전선과 연계하는 정규·비정규전의 배합전술을 구사했다.

특히 북한 유격대는 후방 교란임무를 띠고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여 회에 걸쳐 2,400여명이 침투되었으나, 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에 의해 2,000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고 약 400여 명의 유격대가 잔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화보에서는 한국전쟁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므로 북한 도발사에서는 한국전쟁 관련사항은 제외하였다.

전후 복구기의 대남공작방향은 주로 평화선전공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휴전 이후 북한은 '전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라는 명분 아래 일체의 생산수단을 공유화 하면서 군수공업에 주력하였다.

북한의 평화통일공세는 1958년에 들어와서 더욱 고조되었는데,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철수, 외국군 철수 후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 남북한간 교류와 협상, 남북군대의 최대한 감축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표면적인 평화공세와 별도로 간첩 김정제 사건(1957. 8. 2), 진보당 사건(1958. 1. 12), KNA기 납북사건(1958. 2. 6) 등의 대남도발은 계속되었다. 결국 이 시기는 전후 복구에 역점을 두기 위해 대남평화공세에 맞춘 최소한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할 수 있다.

## 폭력혁명 추구기(1960. 4. 20~1970. 8. 15)

4·19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방향은 위장평화공세를 전면으로 내세운 채, 또다시 전쟁을 통한 폭력혁명을 추구했던 시기이다. 즉 4·19혁명으로 고무된 북한은 한국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틈타 사회주의 혁명의 양양기로 만든다는 투쟁방향을 정하고 간첩의 대량 투입과 용공세력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

1961년 4월 7일, 북한 해군의 어선 6척 나포사건을 비롯하여,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1968. 1. 21),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968. 1. 2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 11. 2), EC-121기 격추사건(1969. 4. 15), KAL기 피랍사건(1969. 12. 11) 파주·금촌 침투 간첩사건(1970. 4. 8), 국립현충원 현충문 폭파사건(1970. 6. 22) 등과 같은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였다.

특히 북한이 대남 게릴라전 수행을 위해 창설된 124군부대와 같은 특수부대요원 31명을 남파시킨 청와대 기습미수사건과 같은 부대 소속 120명을 울진·삼척에 침투시킨 사건은 한국정부의 핵심부를 직접 겨냥한 대담성 외에도 남한내 소수 부락을 점거하여 군사정보망을 구축하고, 주요인사의 납치와 정보수집 등을 목표로 한 게릴라 활동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또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북한 미그기 2대와 초계정 4척에 의해 원산항으로 나포된 사건과 일본 '아츠기'에 기지를 둔 미해군 정찰기가 역시 공해상에서 북한 미그기 2대의 공격을 받고 추락하여 승무원 31명이 실종된 사건은 도발의 상대가 미국 해군이라는 데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육상·해상·공중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 한국군, 민간인, 미군 등에 대한 무차별적 도발이었다.





4척에 의해 원산항으로 나포된 사건과 일본 '아즈기'에 기지를 둔 미해군 정찰기가 역시 공해상에서 북한 미그기 2대의 공격을 받고 추락하여 승무원 31명이 실종된 사건은 도발의 상대가 미국 해군이라는 데 특징이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육상·해상·공중 등 입체적인 방법으로 한국군, 민간인, 미군 등에 대한 무차별적 도발이었다.

## 화 · 전 양면 전술기(1970. 8. 16~1980. 12)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1960년대의 전략추진 성과와 1970년대의 내외정세 평가에 기초하여 대남전략의 기본방향을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중 대남도발은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이면에서는 남침용 땅굴을 파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즉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이 열리고 1972년 7월 2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4년 3월 20일 대미 평화협정 제의 등과 같은 화해 분위기와는 별도로 고랑포 제1땅굴(1974. 11. 15), 철원북방 제2땅굴(1975. 3. 19), 판문점 제3땅굴(1978. 10. 17)이 잇달아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전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1호 땅굴은 군사분계선을 무려 1천m나 파들어온 것으로 시간당 1개 연대 병력이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며, 2·3호 땅굴은 높이와 폭이 각각 2m인 대형 터널로서 시간당 3만명의 병력과 야포까지 침투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전면 남침 감행시 아군의 초기 저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전투요원의 대량침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974년 8월 15일, 북한 공작원이 공작선 '만경봉' 호로 일본에 침투, 문세광을 포섭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피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점과 유엔군의 성격을 띤 미군장교가 도끼에 맞아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의 무차별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미국의 제7함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의 동해 파견과 중폭격기 등의 파견과 같은 강력한 무력 대응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대남도발에 가장 효과적인 대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흑산도 간첩선 침투사건(1971. 6. 1), 김포침투 무장간첩사건(1971. 9. 17), 제주 우도 무장간첩사건(1973. 3. 4), 20사단 지역 간첩침투사건(1977. 5. 3), 동해안 무장간첩선 격침사건(1978. 5. 19) 등 화·전 양면 전술 차원의 대남도발이 잇달았다.

## 대학공세 추구기(1981~1990)

북한은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정세를 관망하면서 혁명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1980년에 접어들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이 거세지고 정국 불안이 가중되자 무장도발을 통해 남한내 혁명으로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둔 대남공작을 폈다.

특히 이 시기는 김정일이 권력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리회담 및 남북대화를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강 하구 3인조 무장간첩 침투사건(1980. 3. 23), 전곡 무장간첩 침투사건(1981. 7. 4), 월성 해안 간첩선 격침사건(1983. 8. 5), 울릉도 간첩선 격침사건(1983. 8. 13),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1983. 10. 9), 다대포 무장간첩 생포사건(1983. 12. 3), KAL 858기 폭파사건(1987. 11. 29), 서해안 어선 납북사건(1989. 1. 28)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 중에서 미얀마의 수도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는 한국 고위관리 21명의 희생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까지 민족적 수치를 드러낸 북한의 만행적 도발이라는 데 특징이 있고, 다대포로 침투한 간첩 전충남, 이상규에 의해 밝혀진 대로 북한의 대남공작능력은 인민무력부 소속의 항공·해상 육전여단 및 저격여단 등 9만 9천명, 노동당 연락부 소속 공작원 1천명 그리고 조총련 공작원 4백명 등 10만명의 특공대가 테러공작 및 비정규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남공작과 도발은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KAL 858기의 공중폭파 사건은 고도의 국가심리전 차원에서 자행된 의도적 도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마감일 50일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은 올림픽 개최국의 안전문제로 불참을 유도하는 방해공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 해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그다드 노선의 근로자 승객 등 115명의 생명을 노렸다는 것은 1987년 대선 정국을 틈타 한국사회 혼란을 획책하고 근로자들의 대정부 불만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었다.

## 방어적 대남전략 추구기(1991~현재)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대남도발은 대내·외적으로 시련을 맞게 되었다. 우선 대외면에서 보면, 탈냉전의 여파로 구소련이 해체되었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달아 붕괴되었으며, 한국의 북방외교 성과로 러시아, 중국과의 국교수립,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미·북 제네바 핵합의, KEDO에 의한 경수로공사 착공 등은 북한의 대남도발을 자제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대내적으로도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잇달은 수해 등으로 식량난과 경제적인 궁핍이 계속되어 한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대남공작 방향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3월 3일, 양구 부근 동부전선에서 제4땅굴이 발견됨으로써 남침용 땅굴 20개 설의 신빙성을 높여 주었고, 철원 북방 비무장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992. 5. 2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장병력 40명 투입사건(1995. 2. 20),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 10. 17), 판문점 무장병력 2개 중대 무력시위(1996. 4. 5), 연평도 북한 어뢰정 2척 침범(1996. 4. 19), 백령도 북한 경비정 5척 침범(1996. 5. 23)에 이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 9. 18), 속초 잠수정 침투사건(1998. 6. 22), 서해안 간첩선 침투사건(1998. 11. 20), 여수 반잠수정 침투사건(1998. 12. 18) 등을 계속적으로 도발함으로써 대남 군사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① 제주도 4·3 사건의 무장대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무장대들이 국군에 체포돼 끌려가고 있다.(1947. 4)

①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신문 보도 내용

194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선공산당은 정치자금 조달책으로 조선정판사에서 지폐 1천3백만圓(당시 쌀 1가마 2천8백圓 정도)을 위조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 걸쳐 커다란 물의와 파문을 자아냈고,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❶ 반도는 귀순하라(여·순 반란사건)

전남 승주군 낙안면 마을 어귀에 「기회는 왔다」는 반도 귀순 권고문이 붙어 있다.(1949. 1)



❷ 국회 부의장이 남로당 프락치로

남로당이 국회에 침투하여 제헌의원들을 장악하려 했던 국회 프락치사건은 정부수립 후 한 국사회가 겪어야 했던 불안정과 혼란스런 분위기의 한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사진은 국회 부의장 김약수 피고가 법정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한국전쟁 이전에도 북한군은 38도선상에서 자주 무력충돌을 일으켜 국군의 경비상황과 군사력을 시험하였으며 도발은 약 680회에 달했다. 1949년 4월 25일 북한군 제6사단은 38도선 남방 100m 지점의 비둘기(송악산) 고지를 기습공격, 피탈하였다. 아군은 5월 4일 이를 탈환기 위해 공격했으나 10개의 토치카로 요새화된 적진지를 탈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제1사단 제11연대 서부덕 소위 이하 9명의 용사들은 박격포탄을 안고 돌진하여 적 토치카를 파괴하고 장렬히 산화했다.



① 당시 개성지구 제1사단장 김석원 장군이 적도발 응징을 검토하고 있다.(1949. 4)

② 적의 요새화된 토치카가 바라보이는 송악산 486고지의 국군감시초소



③ 송악산에서 적 기관총 사격에 의하여 부상, 후송되는 병사 (1948. 8. 6)



◉ 피랍된 KNA기와 동종인 DC-3형 쌍발기



◉ KNA기 납북인사들의 귀국보고 강연 (1958.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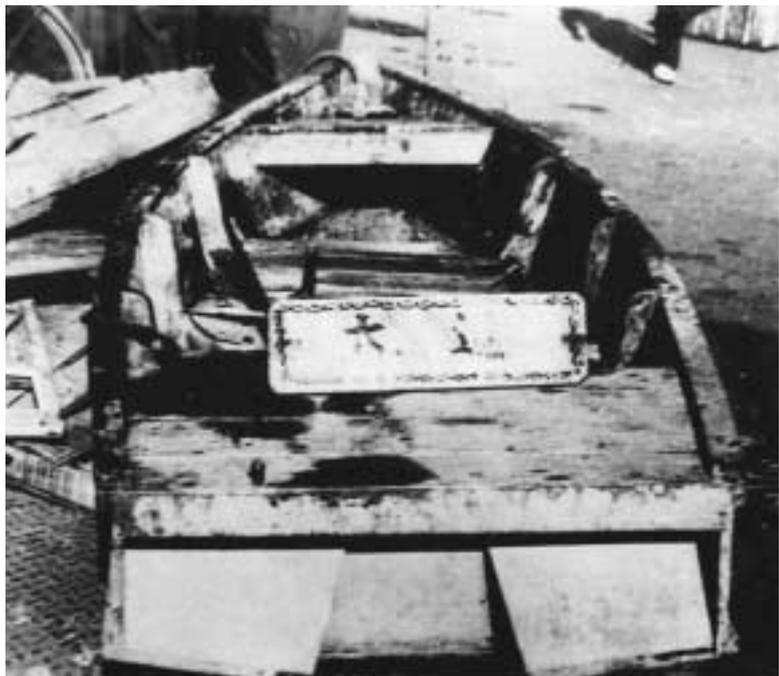
◉ 피랍미수 C-46 수송기

1958년 4월 10일 대구기지를 떠나 서울로 비행중 평택 상공에서 C-46 수송기 피랍기도사건이 발생하여 조종사 김갑규 소령, 최병인 중위와 기상정비사 천병훈 중사, 기상통신사 김상호 하사가 격투 끝에 이를 저지하였으나 김상호 하사가 순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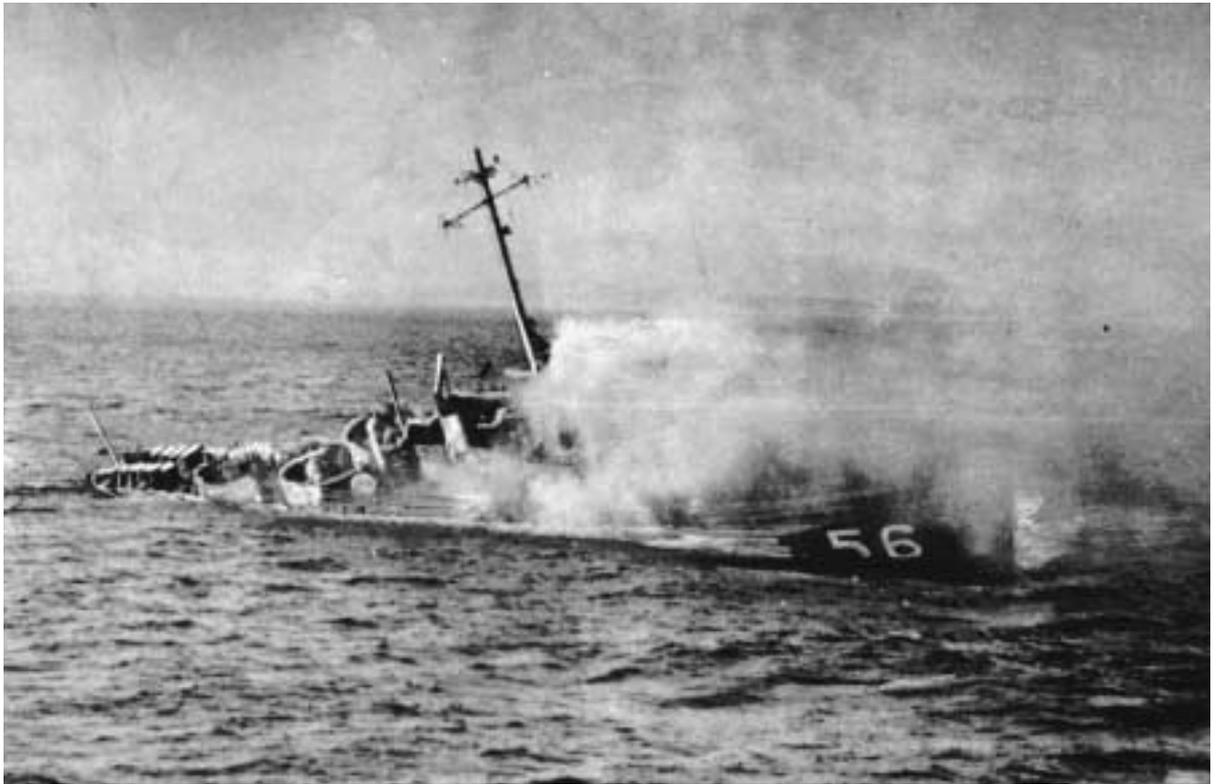


① 2심 공판 장면(진보당 사건)

왼쪽으로부터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한 사람 건너 조규택, 한 사람 건너 김기철, 김병희, 이동화(1958. 10. 25)



① 소연평도 해상에서 독도함(LSM-603)이 격침시킨 간첩선(1959. 7. 25)



④ 당포함(PCEC-56)의 최후 모습

1967년 1월 19일 동해에서 당포함(PCEC-56)이 어로보호작전 임무수행중 북한군의 불법적인 해안포 기습공격을 받아 피격 침몰되어 79명의 인명피해(전사 39, 전상 40)가 발생하였다.



④ 생포된 김신조(1·21 사태)

김신조는 남파된 무장공비 31명 중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1968. 1. 21)



❶ 푸에블로호

북한에 피랍된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1968. 1. 23)  
승무원 83명은 1년 가까이 억류된 끝에 석방되었다.

❶ 북한에 의해 피랍되어 가는 부커 함장과 승조원들  
(1968. 1. 23)



❶ 무장공비들의 만행 현장  
(1968. 11. 2)

1·21 사태에 이어 북한은 다시 동년  
10월 30일~11월 2일간 3차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여 명  
을 침투시켰다.



㉠ KAL기 피랍 규탄대회(1969. 12. 16)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3분 강릉발 서울행 KAL 쌍발여객기 YS11A기가 승무원 4명과 승객 47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25분 만에 북한에 의해 피랍,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비행장에 강제착륙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방송선(P-2) 모습

1970년 6월 5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보호 임무수행중인 해군 방송선이 북한 해군의 고속포함의 기습공격으로 피랍되었다.



㉠ 마수는 국립현충원에 까지

한국전쟁 20주년의 날 국립현충원 참배요인을 암살할 목적으로 간첩을 남파, 1970년 6월 22일 새벽 국립현충원 현충문 지붕에 폭발물을 장치하려다 불시 폭발, 1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1명은 도주했다.





㉠ 서해 어청도 근해에 침투한 간첩선 및 소지품(1974. 7. 19)

㉡ 도끼만행의 현장

북한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를 전지작업하는 민간인을 경비중이던 미군장교 2명을 도끼와 몽둥이로 무참히 살해하고, 미군 4명과 한국군 장교 1명, 사병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 북한 남침 땅굴

북한은 남북적십자 및 조절위 회담 등 대화를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1974년 11월 고랑포 부근에서 최초 땅굴이 발견된 데 이어 1975년, 1978년, 1990년에 제2, 제3, 제4 땅굴이 각각 발견되었다.



❶ 북한의 땅굴이용 동시다발공격 가상도(假想圖)



❷ 고랑포 부근에서 발견된 제1남침땅굴을 국내외 기자들이 취재차 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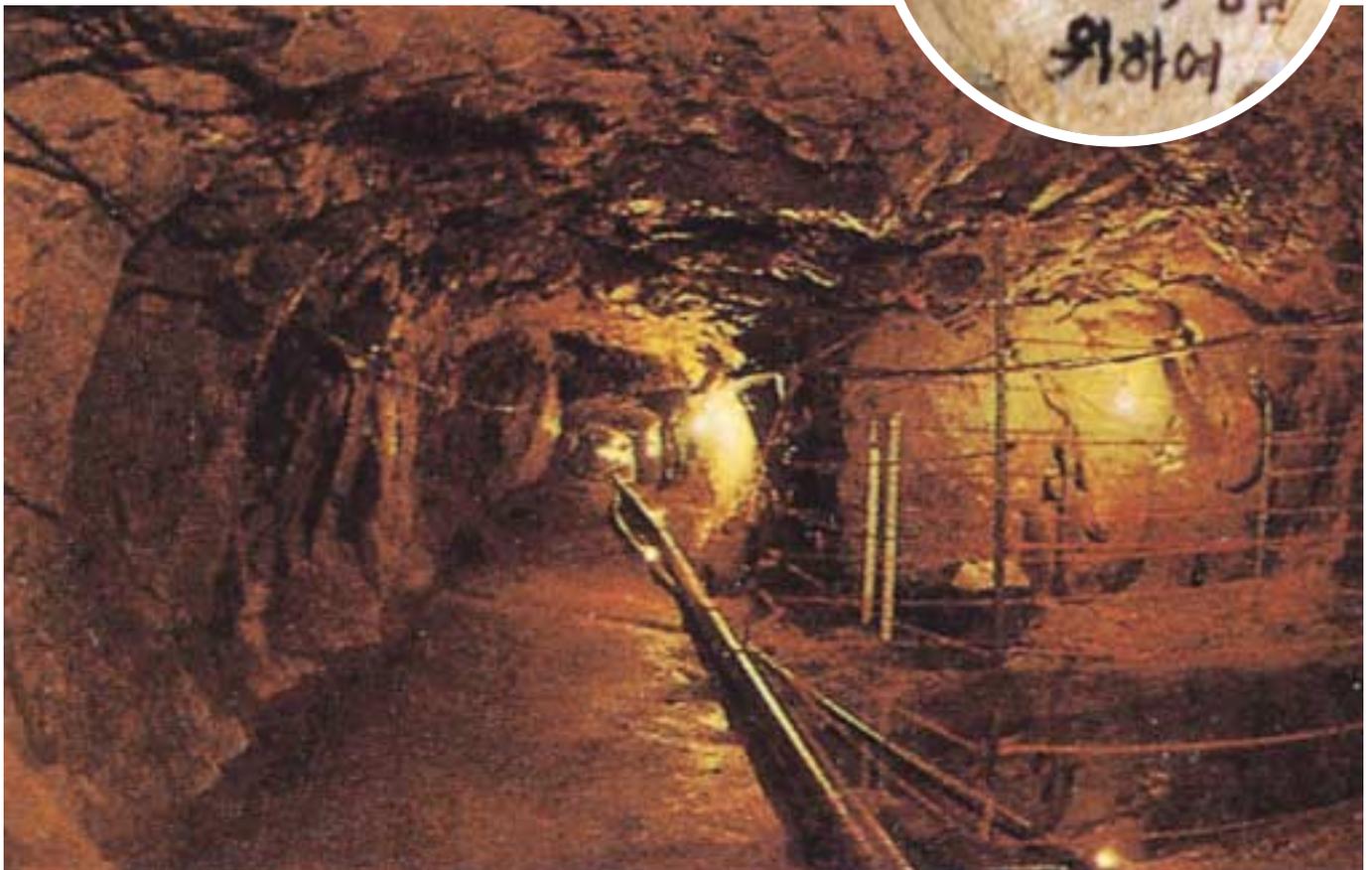
구 분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제4땅굴
발견일시		1974년 11월 15일	1975년 3월 19일	1978년 10월 17일	1990년 3월 3일
위 치		고랑포 동북방 8km	철원 북방 13km	판문점 남방 4km	양구 동북방 26km
크기	높이	1.2m	2m	2m	1.7m
	폭	90cm	2m	2m	1.7m
깊 이		지하 45m	지하 50~160m	지하 73m	지하 145m
총 길 이		3,500m	3,500m	1,635m	2,052m
침 투 길이		1,000m	1,100m	435m	1,028m
예상기습로		고랑포-의정부-서울 65km	철원-포천-서울 101km	문산-서울 44km	서화-원통-영동 고속도로 기습침투



㉠ 제2땅굴 발견(1975. 3. 19)

㉡ 제4땅굴 작업시 써 놓은 구호들(1990. 3. 3)

㉢ 제3땅굴 발견(1978. 10. 17)





1983년 12월 3일 부산 다대포에서 생포된 침투간첩 전총남이 착용한 잠수장비



울릉도 근해에 침투한 간첩선 모선이 침몰하는 장면 (1983. 8. 13)



잣더미로 변한 아웅산 국립묘지

1983년 10월 9일 서남아, 대양주 6개국 순방에 나선 전두환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미얀마에 북한은 정찰국 소속 특공요원 3인조를 침투시켜 대통령 위해를 목적으로 아웅산 국립묘지 폭발만행을 자행, 수행원 17명이 참변을 당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근로자 80여 명을 포함,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858기가 바그다드를 출발, 서울로 운항중 공중폭발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수사결과 이는 서울올림픽 방해를 꾀한 북한 김일성의 지령이 있음이 드러났다.





① 철원 북방 비무장지대 침투중 사살된 무장침투조 노획품(1992. 5. 22)

② 강릉침투 북한 상어급 잠수함

1996년 9월 18일 북한 잠수함 1척이 무장공비 26명을 싣고 강릉 해안에 침투했다가 좌초된 채 발견되었다. 우리 군은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24명을 사살(자살 11명 포함)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① 동해안에 다시 침투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1998년 6월 22일 속초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이 재차 침투하였다. 사진은 동해항에 예인된 북한 잠수정의 모습 (1998. 6. 26)



② 무장간첩 시신 발견

1998년 7월 12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해안가에서 잠수복을 입고 수류탄과 기관총을 소지한 무장간첩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